3.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참된 주인이십니다.

시136:3 **"모든 주들 중에 뛰어나신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 인생의 참된 하나님, 그 하나님은 우리 모두의 길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내 인생의 참된 주인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모든 주들 중에 가장 뛰어나신 주님, 그 주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삶, 그 삶만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길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가정을 인도해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때론 우리 가정 안에 어려움도 있었고, 문제가 있을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은 우리 가족 모두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명절에 다시 한 번 모여 우리 인생의 길을 인도하실 하나님을 신뢰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족 모두가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 가족 모두의 삶을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6. 다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온 가족이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선하시고 인자하시며, 우리의 인생의 참된 주인이신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견고하게 세워져 가는 우리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7. 찬송 28장(복의 근원 강림하사)을 부르겠습니다.

1절: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측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2절: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 주셨네
3절: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맘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치소서 아멘

8. 다같이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이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2020년

추석

가족과 함께 드리는 예배

대한예수교장로회
세광교회
SEKWANG PRESBYTERIAN CHURCH

예 배 순 서

지금부터 추석 가정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1.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2. 찬송 384장(나의 갈 길 다 가도록)을 부르겠습니다.

1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2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갈하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3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 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감화 받은 영혼 하늘나라 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3. 가족을 대표하여 _____ 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추석 명절을 맞아 온 가족이 함께 모여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에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내려주신 그 은혜를 잠잠히 되새겨보며 주님께 경배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삶에 감사가 넘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지난 시간을 돌아보며 우리만 채우는 것이 아니라 나눠주는 은혜도 주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에 믿음을 더하시고 우리의 삶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을 은혜와 화목함으로 채워주시고 자녀들의 미래를 의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가족들의 모든 삶을 다스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4. 함께 읽을 말씀은 시편 136편 1~5절입니다.

1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2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3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4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5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5. 이제 교회에서 준비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시편 136편에는 총 26회의 감사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원래 '감사(Thank)'라는 단어는 '생각해 보다(Think)'는 단어와 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언제 감사할 수 있을까요? 생각하면 감사할 수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에 감사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는 우리 가정이 하나님 앞에서 감사해야 할 진정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1.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신 분이십니다.

시136:1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선하게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가고 그래서 때론 실패인 것 같고 넘어지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결국 우리 모두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 인생의 도상에서 때론 실패와 좌절을 만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래서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줄로 믿습니다.

2. 하나님은 참된 하나님이십니다.

시136:2 **"모든 신들 중에 뛰어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모든 신들 중에 가장 뛰어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들의 모든 인생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한 치의 오차도 없고, 한 번의 실수도 없이 우리 길을 신실하게 인도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그 하나님만이 참된 신이시고, 참된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은 한해 우리 가족 모두 한 치의 실수도 없으신 그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가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절망적이고 어려운 시기 가운데 있지만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고 우리가 다 가늠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들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